

24-07(통권 965호) 2024.04.26

경제주평

-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목 차

■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품목성질별 물가 현황 점검	2
3. 2024년 전망	8
4. 시사점	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경제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 개요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 뚜렷한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물가 상승의 부문별 차별화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은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주요국의 경우 서비스 품목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였으나, 한국은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물가 특징을 품목성질별로 검토하고 물가 불안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물가 향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품목성질별 물가 현황 점검

① 농축수산물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올해도 기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상 향후 물가 상방 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2024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4%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77%p 기여하였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저장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원인이 된 기후 변동성 확대, 재배면적 감소 등의 리스크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작년 상반기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의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햇농산물이 출하되는 하반기 전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② 공업제품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물가 안정 덕분에 둔화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불안 현상이 재현됨에 따라 상승세 확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공업제품 물가는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석유류 물가의 하락세 전환에 힘입어 202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0% 상승에 그쳤다. 최근 공업제품 물가 상승세 둔화를 견인한 석유류 물가 안정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요 기관 유가 전망이 상향되는 등 국제유가 불안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③ 전기·가스·수도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향후에도 미약하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1분기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28.1%) 대비 크게 둔화하며 전년동기대비 4.9%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2년부터 크게 인상되었던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이 2023년 하반기부터 동결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물가 여건을 고려할 때 2024년 2분기에도 전기요금 동결이 전망되는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④ 집세

2024년 1분기 하락 전환되면서 올해 들어 유일하게 물가 하락에 기여한 품목인 집세 물가의 경우, 향후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4년 1분기 집세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1%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01%p 기여하였다. 이는 전세 물가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 전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집세 물가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⑤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물가는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연중 지금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분기 공공서비스 물가는 시내버스료, 택시료 등 교통 요금, 외래진료비 등 병원비가 인상된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상승한 전년동기대비 2.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가격변동이 경직적인 공공서비스 물가의 특성상 연중 2024년 1분기와 비슷한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⑥ 개인서비스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 물가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1분기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대비 상승세가 둔화하며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외식 및 외식제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건비, 임대료 등이 지난해 대비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개인서비스 물가 또한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2024년 전망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해 본 결과 높게는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낮게는 2.5%까지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상품 물가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둔화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은 2.7%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상방 시나리오의 경우는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하방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까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설명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본 시나리오	현 상황 유지될 경우	2.7%
상방 시나리오	작황 부진 지속, 지정학적 위험 확대, 환율 불안정성 심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3.0%
하방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2.5%

■ 시사점

국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가, 환율 등 물가 상방 압력까지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을 통해 물가 안정은 물론 시장의 인플레이(물가 상승) 기대 약화를 꾀해야 한다. 첫째, 최근 국내 물가가 부문별로 뚜렷한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방 압력이 높은 부문에 대한 조기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전체 물가의 추세적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재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원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선제적 개입 등 대응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개요

○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 뚜렷한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물가 상승의 부문별 차별화가 진행 중인 상황

- 올해 들어서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은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물가 상승)가 장기화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1월 3.1%에서 3월 3.5%로 확대되었으며, 유로존(2.4%), 영국(3.2%) 등의 3월 물가상승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주요국의 경우 서비스 품목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였으나, 한국은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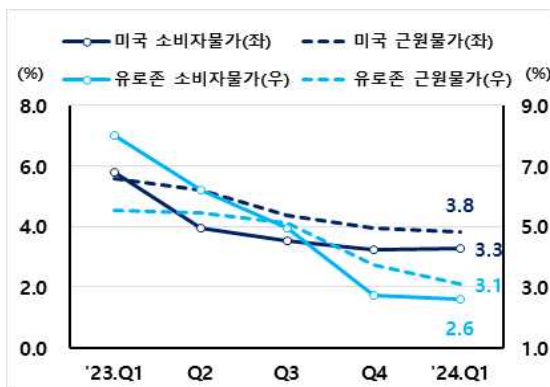
·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경우 식료품, 에너지 물가 안정에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가 지속되면서 물가의 하방 경직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현상을 경험 중

· 반면, 한국의 경우 서비스 물가 상승세 완화에도 농축수산물 등의 품목에서의 물가 불안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 상승세를 상회

※ 근원물가상승률(식료품·에너지 제외, 전년동기비, %) : '23.Q1(4.0) → Q4(2.9) → '24.Q1(2.5)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물가 특징을 품목성질별로 검토하고 물가 불안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물가 향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국 소비자·근원물가상승률 >



자료 : BLS, Eurostat.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근원물가는 식료품·에너지 제외.

<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2. 품목성질별 물가 현황 점검

① 농축수산물

-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올해도 기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상 향후 물가 상방 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2024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4%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77%p 기여
 - 세부적으로는 과일(기여도 0.52%p)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73%p 기여
 - 그밖에 수산물 물가 둔화에도 축산물 물가가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된 점 또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이는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저장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원인이 된 기후 변동성 확대, 재배면적 감소 등의 리스크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
 - 지난해 서리,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이 둔화하고 재배면적까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이상고온 등 평년과 다른 기후 환경이 지속
 - 또한, 주요 농산물 저장량이 감소 중인 가운데 작년 상반기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의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햇농산물이 출하되는 하반기 전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품목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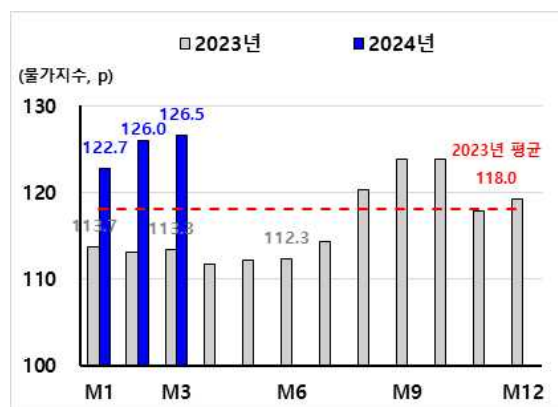
구분	'23.Q1	'24.Q1
농축수산물	1.5 (0.12)	10.4 (0.77)
농산물	1.7 (0.07)	18.9 (0.73)
축산물	-1.3 (-0.03)	0.9 (0.02)
수산물	7.8 (0.08)	1.9 (0.02)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비교 >



자료 : 통계청.

② 공업제품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물가 안정 덕분에 둔화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불안 현상이 재현됨에 따라 상승세 확대 가능성이 상존
 - 공업제품 물가는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석유류 물가의 하락세 전환에 힘입어 202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0% 상승에 그침
 - 가공식품(2.2%), 섬유제품(5.7%) 등 대부분 품목에서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 폭은 둔화
 - 특히, 석유류 물가상승률의 경우 -1.8%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도 -0.07%p를 기록
 - 공업제품 물가 상승세 둔화를 견인한 석유류 물가 안정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 2022년 3월 배럴당 127.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Dubai 기준)는 2023년 점차 하향 안정되어 12월 말 배럴당 77.1달러를 기록
 -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는 5회(12개월) 연장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예정
 - 한편,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요 기관 유가 전망이 상향되는 등 국제유가 불안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품목별 공업제품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3.Q1	'24.Q1
공업제품	4.4 (1.47)	2.0 (0.68)
가공식품	9.4 (0.77)	2.2 (0.19)
석유류	-4.7 (-0.21)	-1.8 (-0.07)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는 기여도.

< 국제유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Bbl)

구분	'23.M12	'24.M3	'24(E)
WTI	72.1	80.4	83.8
Brent	77.3	84.7	88.6
Dubai	77.3	84.2	-

자료 : 페트로넷.
 주1) 실적치 및 전망치는 기간 평균 기준.
 주2) 전망 시점은 EIA 4월 STEO 기준.

③ 전기·가스·수도

○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향후에도 미약하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2024년 1분기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지난해 대비 크게 둔화하며 4.9% 상승
 - 20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8.1%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89%p 기여하였던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2024년 1분기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며 4.9% 상승에 그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0.19%p 기여
- 이는 2022년부터 크게 인상되었던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이 2023년 하반기부터 동결된 영향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됨
 -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2024년 1분기 전기료 및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각각 4.3%, 5.6%로 지난해 대비 크게 둔화
- 현재 물가 여건을 고려할 때 2024년 2분기에도 전기요금 동결이 전망되는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
 -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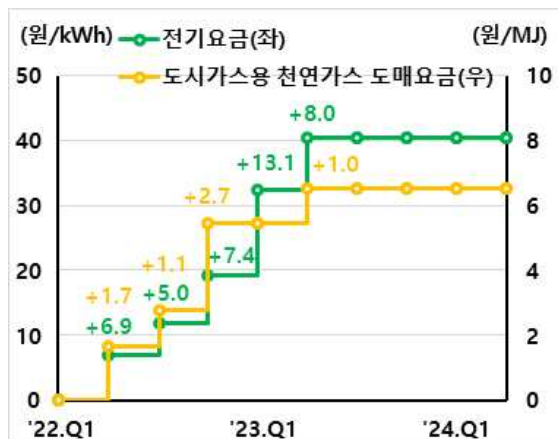
< 품목별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3.Q1	'24.Q1
전기·가스·수도	28.1 (0.89)	4.9 (0.19)
전기료	29.4 (0.45)	4.3 (0.08)
도시가스	36.2 (0.37)	5.6 (0.07)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 폭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주 : 주택용 기준.

④ 집세

○ 2024년 1분기 하락 전환되면서 올해 들어 유일하게 물가 하락에 기여한 품목인 집세 물가의 경우, 향후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

- 2024년 1분기 집세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1%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01%p 기여
 - 집세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1.1%를 기록한 2023년 1분기와 달리 2024년 1분기에는 -0.1%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또한 0.11%p에서 -0.01%p로 감소
- 이는 전세 물가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 전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
 - 2024년 1분기 전세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9% 하락하며 2023년 1분기 1.5%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반면, 2024년 1분기 월세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률(0.8%)을 기록
- 한편,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집세 물가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
 - 전월세 수급동향이 2022년 말~2023년 초 최근 4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집세 물가상승률은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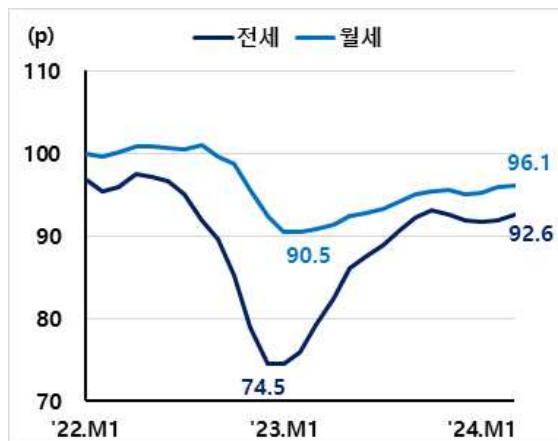
< 품목별 집세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3.Q1	'24.Q1
집세	1.1 (0.11)	-0.1 (-0.01)
	1.5 (0.08)	-0.9 (-0.05)
월세	0.7 (0.03)	0.8 (0.03)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1) 0~200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전세 수요가 우위 또는 월세 거래가 활발함을 의미
 2) 전국 기준.

⑤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 물가는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연중 지금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24년 1분기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대비 확대된 2.1%의 상승률을 기록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은 202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1%로 2023년 1분기 0.9%보다 높았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또한 동 기간 0.11%p에서 0.25%p로 증가
- 이는 시내버스료, 택시료 등 교통 요금, 외래진료비 등 병원비가 인상된 영향
 -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월 강원을 시작으로 8월 서울, 울산, 10월 인천, 부산에서 차례로 인상되었으며, 올해에는 대전, 대구 등에서 인상됨
 - 이에 시내버스료 물가는 2023년 2분기에 상승 전환된 후 2024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
 - 택시 요금도 2023년 1월 대비 2024년 1월 기준으로 총 13개 지역에서 인상에 따라 2024년 1분기 택시료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4.6%를 기록
 - 또한, 1월부터 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며 외래진료비 등 병원비도 인상
- 가격변동이 경직적인 공공서비스 물가의 특성상 연중 2024년 1분기와 비슷한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품목별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3.Q1	'24.Q1
공공서비스	0.9 (0.11)	2.1 (0.25)
시내버스료	-0.7 (0.00)	11.7 (0.08)
택시료	5.5 (0.02)	14.6 (0.05)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교통 요금 변동 지역 수 및 평균 요금 증감액 >

(단위: 개)

구분	전철료 (카드)	시내버스료 (카드)	택시료
인상	5	7	13
동결	1	6	4
인하	0	4	0
평균 증감	159원	81원	783원

자료 : 행정안전부.
주 : 2023년 1월 대비 2024년 1월 기준.

⑥ 개인서비스

○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 물가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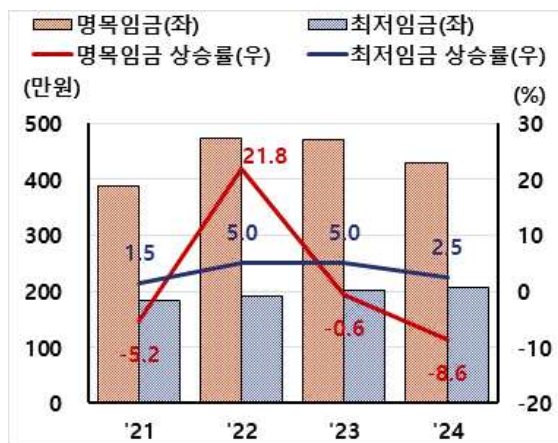
- 2024년 1분기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대비 상승세가 둔화하며 3.3% 상승
 - 2023년 1분기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7% 상승하며 품목성질 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기여도 1.90%p)
 - 2024년 1분기에는 지난해보다 둔화한 3.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1.13%p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
- 이는 전반적인 외식 및 외식제외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되었기 때문
 - 2024년 1분기 외식 물가는 총 39개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2023년 1분기보다 둔화하며 3.8% 상승하였으며, 외식제외 물가는 총 77개 품목 중 64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둔화 또는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3.0% 상승
- 인건비, 임대료 등이 지난해 대비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개인서비스 물가 또한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최근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물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식 품목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재확대될 우려 상존

< 품목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 평균 명목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

(단위: %, %p)

구분	'23.Q1	'24.Q1
개인서비스	5.7 (1.90)	3.3 (1.13)
외식	7.5 (1.03)	3.8 (0.54)
외식제외	4.5 (0.87)	3.0 (0.59)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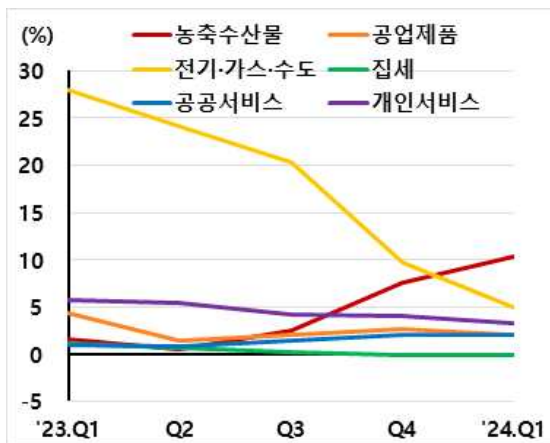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
 주1) 각 연도 1월 기준
 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2024년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해 본 결과 높게는 3.0%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낮게는 2.5%까지 둔화할 전망
- 상품 물가는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 물가의 상승세와 전기·수도·가스 물가의 안정세로 상품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둔화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물가 상방 압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집세 및 개인서비스 물가의 둔화세, 공공서비스 물가의 안정세로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은 2.5~3.0%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기본 시나리오) 현 상황 유지 시 2024년 소비자물가는 2.7% 상승할 전망
 - (상방 시나리오) 작황 부진 지속, 지정학적 위험 확대, 환율 불안정성 심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3.0%까지 상승할 전망
 - (하방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 품목성질별 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구분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본 시나리오	2.7%
상방 시나리오	3.0%
하방 시나리오	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대비 기준.

4. 시사점

- 국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가, 환율 등 물가 상방 압력까지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을 통해 물가 안정은 물론 시장의 인플레이(물가 상승) 기대 약화를 꾀해야 한다.

첫째, 최근 국내 물가가 부문별로 뚜렷한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방 압력이 높은 부문에 대한 조기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전체 물가의 추세적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의 당해년도 작황은 물론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불안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특히, 美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엘니뇨가 4~6월 중 중립전환(85%)된 후 6~8월 라니냐가 연속으로 발생할 것(60%)으로 전망되어 예측 불가능한 기후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기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농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물량 비축 역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비축 물량의 선제적 방출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수급 관리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수입 품종 외에 대부분의 농산물을 국내 수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농산물 수입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비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작황에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농축수산물 해외 수입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 물량 쿼터 조정 및 수입 물량의 조기 발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해 보임

- 다만, 농산물 수입 확대 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농업정책 및 예산 확충을 통한 피해 보전은 물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동시 추진하는 등 농업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함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재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원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재확대된 이후 최근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 수준(Dubai, 4월 17일 90.1\$/bbl.)까지 상승
-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공급 측면에서도 OPEC+의 현행 감산 정책(2024년 1분기 생산량 220만 b/d 감축) 연장이 전망되는 상황이며, 수요 측면에서도 OPEC이 석유 수요의 견조한 성장을 전망하고, 하반기 라니냐 발생으로 북반구 난방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등 유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
- 이러한 국제유가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업제품 물가는 물론 상품 및 서비스 물가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세 확대가 우려되므로 원유 가격 예측 기능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수급 기반 조성 등 계획적인 사전 관리를 통해 전체 물가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
- 한편, 산업 전반 측면에서도 국제유가 급등은 에너지의존도가 높고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산유국들의 공급 통제에 대응하여 전략 비축유 규모 재조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유가 불안이 주요 원자재 가격 불안으로 이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핵심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통상 노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 시장 모니터링 및 선제적 개입 등 대응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라 원화 약세가 심화된 가운데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연고점을 갱신한 상황(4월 16일 1,394.5원)
-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전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투기자금 모니터링 강화, 외환당국의 선제적 개입 등 대응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환시장 정책은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환율의 방향성보다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HRI**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